

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.

지난 13일부터 한국 중부 지역에서 시작된 폭우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었고,
또한 집중 폭우로 인한 피해 규모도 크다고 합니다. 이 소식을 접한 호주 연합교회
전국 총회에서는 기도와 함께 위로의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.

호주 연합교회에 있는 한인들도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서, 그리고 피해지역 복구를
위해서 각자가 속한 교회에서, 돌아오는 주일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
한인 전국대회의 이름으로 제안합니다.

은혜로우신 하나님,
이번 폭우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폭우로 인한 피해
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.
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. 피해 유족들의 가족들에게
위로를 주시고, 피해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정부나 관청,
지역 사회가 한 몸이 되어 일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아멘.

Gracious God,

*We have learned that the recent flood in South Korea has claimed many lives
and left others missing. The overwhelming force of the rushing water has caused
significant damage to communities.*

*In this time of desperation and fear, we humbly ask for your love and protection
for all those who have been devastated and isolated by the flood.*

*We also pray for unity amongst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and officials as
they work together to restore what has been lost and rebuild what has been
destroyed.*

May the recovery efforts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. Amen.

호주 연합 교단 한인 전국대회 의장

박 명화 목사